

## 1

##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

## □ 사업개요

- 기 간 : '24. 11. 25. ~ '25. 8. 31.
- 수행기관 : (주)메트릭스
- 주요내용 : 서울시 중소기업 전반에 관한 정량·정성조사 및 통계 승인

구 분	주요 내용
① 중소기업 기본현황	- 내용 :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통계DB를 활용하여 산업·지역별 중소기업 수, 종사자, 매출액 분포, 전국 비교
② 중소기업 실태조사	- 대상 : 연 매출액 5억원 초과 중소기업 5,000개 이상 ※ 숙박음식점, 교육서비스업은 3억원 초과 - 내용 :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 70개 항목(근로환경, ESG경영, 정책인지 등) 조사
③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	- 대상 : 중소벤처기업연구원, 산업연구원 등 전문가 8명 - 내용 : 조사결과 해석, 대내외 경제여건, 중소기업정책 방향 제언
④ 특정주제 심층조사	- 대상 : 외국인 고용기업·근로자·유학생, 유연근무제 도입(예정) 기업·근로자 - 방법 : 국내외 사례조사, 그룹별 FGI(초점집단면접) 활용한 간담회 진행
⑤ 국가승인통계 추진	- 절차 : 행정자료 우선활용* 여부 판단 → 승인신청 → 결정 및 통지 ※ '25. 4. 국가승인통계 등재 완료

\*통계작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, 기존의 행정자료로 대체 가능한지 자체 판단하거나 통계청에 판단을 의뢰하는 절차

## □ 중소기업 기본현황 ('23년 기준)

- 중소기업 수는 증가, 종사자 수 및 매출액은 감소
  - (기업수) 중소기업 수는 1,696천 개로 '22년 1,666천 개 대비 30천 개(1.8%) 증가
  - (종사자) 종사자 수는 4,336천 명으로 '22년 4,403천 명 대비 67천 명(△1.5%) 감소
  - (매출액) 매출액은 809조 원으로 '22년 823조 원 대비 14조 원(△1.7%) 감소
- 지역별 중소기업 및 종사자 수는 강남3구(강남,송파,서초) 및 영등포구·중구가 많음
  - (기업수) 강남(9.5%), 송파(6.5%), 영등포(6.4%), 서초(6.1%), 중구(5.8%) 순
  - (종사자) 강남(10.0%), 송파(6.5%), 서초(6.4%), 영등포(6.3%), 중구(6.0%) 순

## □ 중소기업 실태조사 주요결과 ('23년 기준)

- (일반 현황) 평균 기업연령은 14.1년으로, 20년 이상 기업이 26.0%
- (인력 실태) 기업 규모별 인력 편차가 크고, 학력·경력별 인력 수요가 상이
  - 평균인원은 12.6명, 중기업이 36.1명으로 소기업(6.4명) 대비 약 5배 수준
  - 인력 부족률은 1.7%로, 특히 학사 이하·경력 5년 미만의 인력이 부족
    - ※학력별 부족률 : 고졸(1.9%), 전문학사(1.8%), 학사(1.7%), 석사(0.5%), 박사(0.0%)
    - ※경력별 부족률 : 1년↓(6.9%), 1~3년(4.2%), 3~5년(2.0%), 5~10년(0.3%), 10년↑(0.2%)
- (재무 현황) 매출 총액은 670조 9,699억 원으로, 매출의 95.6%가 내수
  - 업종별 비중은 도·소매업(42.6%) > 건설업(11.3%) > 정보통신업(10.9%) 순
- (신사업 추진 비율) 서울 중소기업의 신사업\* 활용·추진 비율은 4.5%
  - 미도입 사유로는 현재 사업으로 충분(78.4%), 자금조달(11.1%), 아이템 발굴(4.7%) 순
  - \*스마트모빌리티, 바이오헬스, 에너지, 전기전자, 정보통신, 로봇, 친환경, 핀테크 등
- (ESG 경영) 인지율은 전년 대비 상승(27.0→27.7%)
  - ※알고 있으나 미도입(22.5%) > 일부 도입(4.3%) > 경영 전반에 도입(0.7%) > 도입했으나 미추진(0.2%)
- (경영 애로사항) 기업경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 확보
  - 활성화가 필요한 지원정책도 자금(45.7%), 인력(5.7%), 창업(3.8%) 순으로 응답

## □ 특정주제 심층조사 결과

- (유연근무) 소규모 사업체에 적합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 필요
  - ※국내기업 규모별 유연근무 활용률 : 300인 이상 36.6%, 300인 미만 11.5%, 4인 이하 1.4%
  - ※서울시는 전체 중소기업의 94.2%(1,597천 개)가 소상공인으로,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높음
- (외국인력) 노동집약적 분야에서의 저숙련 외국인근로자 의존도가 높음
  - ※산업별 외국인근로자 비율 : 도소매·음식·숙박(35.8%),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(26.8%), 건설(22.7%)
  - ※직업별 외국인근로자 비율 : 단순노무(27.1%), 서비스판매(25.6%), 기능기계조작·조립(25.3%)

## □ 향후 조치계획

- 중소기업 실태조사 실시('24년 기준) : '26. 2.~8.